

7. 나도 죄인인가요?

로마서 3: 9-18

9. 그러면 어찌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 파멸과 고상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윤법이 말하는 바는 윤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거론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거북한 것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때 미국 교회를 휩쓸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같은 것이 좋은 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와 글에 열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특징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야 우리가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지요.

꼭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나요?

그렇게 듣기 싫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단언하여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면을 보려는 경

향이 있고, 자신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질책하셨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키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무척 관대하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나폴리의 총독인 오수나 공작이 한 번은 죄인들이 노를 젓는 배를 시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죄수를 한 사람씩 만나서 어떤 죄를 짓고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죄수들은 한결같이 누명을 썼다느니, 함께 죄를 지은 자가 자기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웠다느니,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등,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독님, 저는 돈이 탐나서 남의 지갑을 훔친 죄인입니다. 그 벌을 지금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 죄수의 말에 감동받은 총독이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오,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군! 그러니 그를 여기서 끌어내서 배 밖으로 데려가게. 여기에는 이 사람 말고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않겠는가?”

사람들이 왜 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까요?

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사람들은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선언을 한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방문했던 시카고 근교의 Hammond Baptist Church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잭 하일스 목사님은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블루칼라들이 주로 사는 험악한 지역이었는데 심각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 도중에 권총을 뽑아들고 강단을 향해 발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교회 강단은 방탄유리로 보호가 되었고, 그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죄가 큰 사람으면 사람일수록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우리말에 “방귀 뀐 놈이 성 낸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등의 말이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에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죄를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이론적, 철학적 근거를 만들어 자신을 위장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대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런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잘 언급하지 않거나, 원색적인 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기술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의롭게 여겨지는 곳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죄인이라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왜,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언급되거나 다루는 것을 싫어할까요?

죄를 이야기 하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그런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요즘 선거에서 'negative'전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 시킴으로 자신의 단점을 덮어 보려는 시도들 말입니다.

옥한음 목사님이 쓴 [전도 프리칭]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미국유학 시절 저하고 같이 지내던 룸메이트 한 명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화장실에서 남보다 배로 시간을 소비하고 닦고 바르고 나서는 하얀 옷을 입고 나갑니다.

한번은 정말 새하얀 옷을 입고 나왔는데 흑인이 흰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흰색을 좋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흑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흑인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가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흑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세태들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차별적 언어들에 대해 아주 민감해 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젠더 이슈’라 불리는

것들인데, 여성은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발언들에 대하여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표현은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죠.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 ‘청각장애’의 반대는 ‘건청,’ ‘시각장애’의 반대는 ‘건안’이라고 지칭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에서도 ‘흑인’이라는 말보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른다고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언어들을 통해 건강한 의식과 사회와 약자를 바라보는 교정된 시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더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단순히 언어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시절 부평에 있는 ‘혜광 맹아원’이라는 곳에서 몇 년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책임을 맡았던 저는 맹아원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갖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아이들이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했다는 것이죠. 사진을 찍어도 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사진 찍어도 보지도 못하는데 왜 좋아해?” 그 때 아이들이 활짝 웃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앞을 보지 못하잖아!”라는 말이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보니 못하는 너와 우리들이 함께 하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앞에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 이야기를 싫어합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핥이요”

죄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이 죄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가 “심판과 죽음”的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음과 연결된 문제이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죄가 습성화 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능력과 교회의 힘

이 상실됩니다.

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삽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성도와 추문에 걸려든 것이지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설교시간에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공식적으로 교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내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취급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 많이 회개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너무 자신의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회개하는 것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우리는흔히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행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그의 뜻을 어긴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혹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 않은가요? 아니, 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양심이 굳어있고, 성경을 모르고, 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 어떻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죄를 모른다고 끝나는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인되지 못한 자들의 죄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도 없도다

/3.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5.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6. 짜증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8.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를 하나님은 문제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함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제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흔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어린아이의 죄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남는 젖을 다른 아이에게 주는 것이 싫어서 울었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악함을 보았다고 말을 하지요.

어떤 아이가 엄마를 무척 성가시게 합니다. 늘 시키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물 좀 떠다 주세요.”

“니가 떠다 먹어”

“엄마 그래도 물 좀 떠다 주세요.”

“아 글쎄, 니가 떠다 먹으래도.”

“엄마 물 좀 떠다 주세요.”

“한번 만 더 물을 떠다 달라 그러면 혼난다!”

“엄마, 그럼 혼내려 올 때 물 좀 떠다 주세요.”

어린 아이지만 참 얄밉죠?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리고 예쁘다고 천사 같은 모습만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아이들이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죄성을 지닌 모습이 있을까를 볼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 다 천사 같은 생각만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험한 일을 당하기 전, 어렸을 때, 천사 같은 생각만을 하셨나요?

이 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양심의 시대도 지나가고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전하여 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훨씬 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하나는 모두가 맞이하게 될 “개인적인 심판”이요,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맞이하는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죄지은 인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어 봤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맞이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다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여 사죄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판에서 벗어 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익숙해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는 군목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고와 자살한 사람들을 경험했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간에 가서 죽은 사체를 확인하고 부모들을 위로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고,

대전 통합병원에서 일할 때는 수술하는 장면과 수술환자들을 위한 기도, 헬기가 추락해 대형 사고가 났던 일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병원에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시신을 데리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했던 경험들, 유산하여 죽은 어린 시신을 위해 기도해야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은 죽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결코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누나가 저를 업고 있다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순간 저도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을 하며 “어떻게 나 혼자 사나?” 염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우리를 오래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죽은 후의 심판도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모르거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남한산성 육군 교도소의 군목으로 근무하실 때를 회상하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스스로 무척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거나,

자신들은 죄를 지은 것이 발각되어 여기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지 발각되지 않는 죄 때문에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이유이든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외 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한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보다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가장 명쾌한 대답입니다.

춘추(春秋)를 해설한 춘추삼전 중에 하나인 ‘좌전’ 양공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상아가 있는 까닭에 제 몸을 잃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끼리가 죽는 것은 그의 잘난 상아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온라인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라는 설문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1위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친구들 중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라는 게 1위였고,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못난 친구가 잘난 체 할 땐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잘난 친구가 잘난 체할 때는 정말 꼴 보기 싫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잘난 체하고 혼자 튀려고 애를 쓸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의 실수를 은근히 바란다는 사실을 말

입니다. 사람들은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하거나 다소 허점을 보이는 사람을 훨씬 좋아 합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감싸 안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지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학목되었은 즉 학목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모든 우리의 허물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 알려진 기업 광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렌터카 회사가 Hertz입니다. 거의 독점하다 시피 했죠. 당시 대부분의 회사들이 Hertz를 이기기 위해 과장하여 광고를 할 때, AVIS라는 회사는 이런 카피를 내 보냈습니다.

"We are Number 2! So We Try Harder!"

이 광고는 예상외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먼저는 1위를 달리고 있는 Hertz회사의 경계심을 풀었고, 소비자들은 이들의 솔직함에 공감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잘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규님이 쓴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가족찬송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 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얼른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죽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 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모두 한 바탕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좋거워하고 오래 기억하고 들춰내려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고,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려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지면 사물을 보는 눈이 작아집니다. 남의 허물을 찾으려는 안간힘은 나의 허물을 감추려는 안간힘이입니다. 남의 허물을 잡았다고 해서 그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잡는 과정에서 내가 패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의 승리를 보면서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진리의 빛 아래서 삶이 교정되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흑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함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